

# Maison

메종 marie claire

2013 MARCH  
WWW.MAISONKOREA.COM

## INTERIOR

컬러를 즐기는 삶  
어느 절충주의자의 집  
실용적인 홈 드레싱

## DECO

컬렉터의 방으로 들어가다

## 2013 MAISON&OBJET

두 명의 에디터가 건져 올린 키워드와 취재 후기!

## FOOD

봄나물의 싱그러운 변신  
밀크티 한 잔의 위로  
마이너스 밥상 체험기

## INTERVIEW

프랑스 <마리끌레르 메종>의 스타일 디렉터,  
다니엘 로젠스트로쉬를 만나다

## INSPIRATION

Simple Beauty

# a small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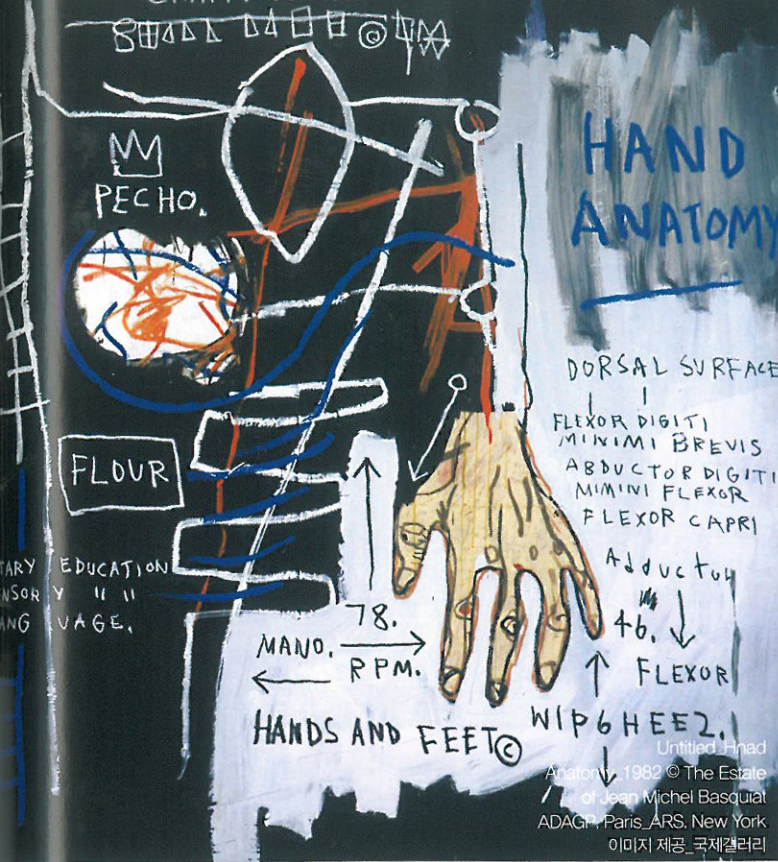
SPECIAL ISSUE

세계를 뒤져 찾아낸 작은 집 사례 다섯 가지  
작은 집의 편견을 깬 네 가지 제안  
작은 집에 대해 묻고 답하기

정가 6,500원







Untitled Hand Anatomy, 1982 © The Estate of Jean-Michel Basquiat ADAGP, Paris, ARS, New York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DESMOND\_1984 © The Estate of Jean-Michel Basquiat ADAGP, Paris, ARS, New York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STORAGE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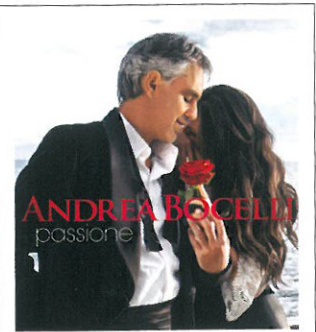
##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아기의 뇌는 태어나서 3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모와 아이의 상호교감은 매우 중요하다. 스토크 코리아는 갓 태어난 아이와 부모의 멋진 교감을 위해 트림트랩 신생아 세트를 제안한다. 트림트랩 신생아 세트는 의자에 스스로 앉아 있기 어려운 신생아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 스토크의 대표적인 유아 의자인 트림트랩에 장착해서 사용하며, 분리하면 신생아 바운سر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트림트랩 신생아 세트를 유아 의자 트림트랩에 장착하면 무엇보다 아이가 가족과 눈을 맞출 수 있는 높이에 있게 된다. 아이와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다. 사용은 신생아부터 9kg까지. 19만5천원. 문의 1544-8342



## 검은 피카소의 전시

검은 피카소, 장-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천재성은 장 뒤 뷔페, 재스퍼 존스와 같은 현대 회화의 대가들과 함께 거론되곤 한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바스키아의 독특한 이미지들의 구성과 조화는 대가들과 견줄 만큼 탁월한 평가를 받아왔다. 바스키아는 전통적인 미술 언어에 구애 받지 않은 그만의 작품 언어로 유명인데 대표적인 것이 해부학 도상들이 그려진 작품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비장을 들어내야 했던 7살,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그레이의 해부학) 책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들은 파격적이고 신선하다. 지난 2월 14일에 개최된 바스키아의 전시에서는 그만의 비상한 미술 언어를 감상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 팝아트의 부흥에 따라 대중적인 아이콘을 상징적으로 담은 작품과 특유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 문의 www.kukjegallery.com



## Love Songs

천상의 목소리, 안드레아 보첼리가 사랑을 노래한다. 그래미 어워즈를 16회 수상한 데이비드 포스터가 프로듀싱한 이번 앨범 타이틀은 '파시오네(Passione)'. 포스터와 보첼리는 이미 앨범 <아모르>를 함께 작업, 발매 즉시 빌보드 앨범 차트 3위에 올려놓는 저력을 발휘한 환상의 콤비이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더 기대된다. 불후의 러브송으로 가득하며, 이 중에는 제니퍼 로페즈와 함께 부른 곡도 있다. 유니버설 뮤직.

## 황금이 아닌 인간다움

어린이를 위한 '9만 개의 별' 시리즈의 첫 책인 <마지막 종이 책>의 후속 권 <빅 브라더>가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슈퍼 컴퓨터 '빅 브라더'를 막아내고 가족을 구하는 주인공 새벌의 이야기. 중국의 놀이 공원, 프랑스의 보르도 항구 등으로 이어지는 새벌의 여정이 긴장감 넘친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도 디지털 문명의 위험성을 느끼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듯. 심금 글, 김유진 그림, 샘터.



여기, 올해의 띠 동물에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곳이 있다. 바로 재단법인 예울의 신년특강이다. 예울은 가회민화박물관 윤열수 관장의 강의로 8년째 신년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의 주제가 '한국예술에 나타난 올해의 띠 동물'이다. 강의를 통해 민화, 건축, 불교미술, 지리, 공예품 등 다양한 예술품에 나타난 띠 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신년특강은 2월 26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되며 강의는 무료, 예약은 필수이다. 한편 예울은 신년특강과 더불어 서울 산책, 답사, 예울 렉처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중 예울 렉처는 주한 외국인인과 교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지리 등에 대해 교육하는 영어강좌이다. 오는 3월 5일에 첫 강의를 시작하며, 건축가 황두진이 '아시아의 모더니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며 강의는 무료, 예약은 필수이다. 문의 www.yeol.org 에디터 송성림